

예술과미디어학회
한국영상문화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일정 : 2019년 11월 16일 (토)
장소 : 서소문 역사박물관 명례방

예술과미디어학회 한국영상문화학회 공동주최
2019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이미지 : 역사와 인간사이

2019
Image
History
Human

목 차

1. Evelyn Huang(인도네시아 curator/Department Head Academic & Program in IDS | International Design School) 1
“Art, Science and Nature: Towards Future Possibilities”
2. Weixin Chong(싱가포르 Lasalle College of the Arts) 6
“Spectral Skins: Looking at the theme of visioning self through three series of recent works”
3. Akikazu Harada(일본 HRD fine art director) 11
“Kyoto and Seoul - Double-layered History”
4. 정지현(사진작가/중앙대학교) 14
“작가의 개입을 통한 건축 공간의 해체와 사진적 재구성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5. 박경애(동아대학교) 21
“한국 하이퍼리얼리즘에 나타난 이미지의 역설”
6. 이윤희(한국외국어대학교) 32
“포스트기억과 역사: 재현 매체를 통해 본 증언과 내레이션”
7. 신승철(강릉원주대학교) 34
“포스트휴먼과 신체의 미래”
8. 최소영(홍익대학교) 42
“세계상의 시대’와 예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연구”
9. 최종철(일본 미야자키국제대학교) 53
“이미지의 고통과 사랑: 알란 크루디의 사진을 보다”
10. 유현주(한남대학교) 61
“디지털 매체의 시대, 예술은 여전히 정신적인 것인가?
- 아도르노의 미적 가상 개념을 중심으로”

주 소

주최: (사)한국영상미디어협회, 한국영상문화학회

주관: 예술과미디어학회, 한국영상문화학회

회장 김범수 회장 박영원

디자인/편집: 손준호(홍보간사)/전은선(편집간사)

문의처: 예술과미디어학회 사무국장 이연숙

© cammp19@gmail.com ☎ 010-8877-2298

www.cammp.or.kr

한국영상문화학회 총무이사 이재걸

© visual-culture@hanmail.net ☎ 010-9473-7903

www.kavic.or.kr

**Spectral Skins: Looking at the theme of visioning self
through three series of recent works**

스펙트럼 피부: 최근의 세 가지 연작 작품을 통해 자아를 상상하는 주제
살펴보기

Weixin Chong
싱가포르 Lasalle College of the Arts

flesh and 'nature' – beige dreams

My work has been much about skins, the largest sensory organ we possess as well as our various 'coverings'. In beige dreams, an installation featuring a photographic series, I used flowering plants as metaphors for human skin and flesh, applying makeup to them and letting them wilt in various stages. This 'skin' of the human image of presentation to the world is itself woven from images we have seen or been taught to see as signs and symbols of abstract qualities we desire, or are supposed to want to possess and display.

image as bondage – footbound

footbound, a video piece combining the movements of feet encased under latex with fourteen lines excerpted and recombined from the poet Sappho, blending the spectre of the desired, desirer and desire with a cadence of laboured breath and insomnia-countering deep sea ASMR sounds.

It references the history of the 'Lotus foot', an epithet given to the bound results of the foot-binding practiced in Chinese culture for well over 9 centuries.

"Three-Inch Golden Lotuses... Such beauty is created, however, through sheer violence. For about two or three years, little girls go through the inferno of torture: the flesh of her feet, which are tightly bound with layers of bandages day and night, is slowly putrefied, her toes crushed under the soles, and the insteps arched to the degree where the toes and heels meet.

- Aching for Beauty: Footbinding in China by Wang Ping

The extreme nature of this practice did not stop it from being widely normalised in Chinese society, with economic, aesthetic, cultural and disciplinary reasons provided for it. The poet Su Shi famously praised the beauty of small, swaying bound feet even in the Song

dynasty.

It is a historic example of the powerful urge to mold ourselves according to images that continues till today in body modification, cosmetic surgery, makeup and fashion.

"...the relationship to the mirror image already includes the gaze of the other in its most radical form...giving rise to the subjective question: What does the other want from me? ...The female artist ORLAN works with...aesthetic surgery, to show that art and aesthetics in modernity are no longer bound to the model of mimesis: neither that of nature nor that of society.

- I See Me See Myself: Notes on Art, Subjectivity & Aesthetic Surgery by Felix Ensslin

morphologies & morphing- winter mantids

Currently in the MMCA Goyang residency (Sept- end Nov 2019), I have begun to explore my interest in themes of Morphing and the evolution of appearance and presentation styles. Looking at avant-garde Korean contemporary fashion label Blindness, and the gender norm challenging of entertainment icon G-Dragon's styling, I am imagining possibilities of reflecting gender fluidity and post-humanness.

The new series of soft sculptures Winter mantid hybrids blends these influences with references from science fiction author Octavia Butler and the orchid mantis, an insect which has adapted to resemble orchids in what is known as 'aggressive mimicry'.

Butler's writing in her post-apocalyptic series Lilith's Brood (composed of the three novels Dawn, Adulthood Rites, and Imago) describes a world where humanity struggles to adapt itself to its new environment by merging with alien species and taking on new forms.

In the voluminous forms depicted by Joseon dynasty painter Shin Yun Bok, details of the sculptural robes of traditional Korean dress of the time create another form transforming/ overpowering that of the human body.

"K-pop male singers' gender performativity is significant, as it challenges rigid gender binaries in western culture - homosexuality/heterosexuality, masculine/feminine body and behaviour, and masculinized gaze/feminized object - as embodiments of hybridized male femininity, which this article calls liminal masculinity."

- Queering Spectatorship in K-pop: The Androgynous Male Dancing Body and Western Female Fandom by Chuyun Oh

"Korean style is about moving fast... We want to go faster and faster"

- G-dragon for i-D

Winter mantids mixes these references, being alien-like bodies that blend insect with mammal, but also being harnesses that hint at being worn.

(following: some image references, not necessary to include in booklet)
Joseon dynasty Shin Yun Bok paintings, Korean fashion label Blindness, G-Dragon portrait, orchid mantis, model of bound foot and 'lotus' shoes, ORLAN in performance surgery



살과 '자연' - 베이지색 꿈

나의 작업은 주로 다양한 '외피(coverings)'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각 기관인 피부(skins)에 관한 것이다. 사진 시리즈를 특징으로 하는 설치 작업인 <베이지색 꿈>에서 나는 꽃을 피우는 식물들에 색조 화장을 하고, 그 식물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시들게 하여 인간의 피부와 살에 대한 은유로 사용했다. 세계에 대한 표상으로서의 인간 이미지에서 이 '피부'는 우리가 바라는 혹은 소유하고 과시하기를 원해야 하는 추상적인 성질들을 나타내는 상징과 기호로 보아 왔거나 그렇게 보도록 배웠던 이미지들로 엮은 것이다.

속박(bondage)으로서의 이미지 - 전족(footbound)

<전족>은 욕망의 유령, 욕망하는 자, 깊은 바다의 ASMR 소리의 불면, 고된 호흡의 종지부인 욕망 등의 혼합체로서 라텍스 밑에 싸인 발의 움직임과 사포의 시로부터 발췌하여 재조합한 14행시를 결합한 비디오 작품이다. 이 작품은 9세기 이상 동안 중국 문화에서 행해진 전족의 결과를 나타내는 별칭 '로터스 발(Lotus foot)'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3인치와 황금빛 연꽃... 하지만 그러한 아름다움은 순전히 폭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약 2, 3년 동안 어린 소녀들은 지옥 같은 고문을 겪는다. : 밤이고 낮이고 여러 겹의 붕대로 꽁꽁 묶인 소녀의 발의 살은 서서히 부패하고 발가락은 발바닥 아래에서 으스러지며 발등은 발가락과 발뒤꿈치가 만나는 정도의 아치형이 된다.”

- Wang Ping의 <아름다움을 위한 아치: 중국의 전족>

이 관행의 극단적인 본성은 그것에 대한 경제적, 미학적, 문화적, 규율상의 이유로 인해 중국 사회에서 널리 일반화되어 버렸다. 시인 수 쉬 (Su Shi)는 송나라에서도 작고 흔들리는 묶인 발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신체 변형, 성형 수술, 메이크업, 패션 등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미지들에 맞춰 우리 자신을 구조하려는 강렬한 충동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거울 이미지와의 관계는 이미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타자의 응시를 포함하고 있다. “타자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와 같은 주관적인 의문이 생기게 하면서 말이다. 여성 예술가 오를랑은 현대의 예술과 미학이 자연 모델도 사회 모델도 더 이상 미메시스적 모델에 구속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형 수술 작업을 실행한다.

- Felix Ensslin의 <나는 나 자신을 보는 나를 본다.(I See Me See Myself): 예술, 주관성 & 성형 수술에 관하여>

morphologies 형태 & morphing 물핑(점진적으로 변하는 이미지) - 겨울 사마귀

현재 나는 MMCA 고양 레지던시(2019년 9월-11월 말)에서 모핑(Morphing), 외모와 표현 방식의 발전을 다루는 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기 시작했다. 전위적인 한국 동시대 패션 브랜드 '블라인드니스'와 엔터테인먼트 아이콘 지드래곤의 스타일링에서 드러나는 젠더 규범에의 도전을 보며, 나는 젠더 유동성과 '포스트-인간성'을 반영할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다.

새롭고 '부드러운' 조각 시리즈인 <겨울 사마귀 잡종>은 옥타비아 버틀러의 공상과학소설에서 참조하고 '공격적인 모방'이라고 알려진 난초를 닮도록 변형된 <난초 사마귀화>의 영향을 받아 한데 뒤섞는다. 버틀러가 세 편의 소설 Dawn, Adulthood Rites, Imago로 구성된 종말론적인 시리즈인 <Lilith's Brood>에서 쓴 글은 인류가 외계 종족과 융합하고 새로운 형태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조선 시대 화가 신윤복이 그린 풍부한 양식의 전통적인 한복의 조각 예복은 인간의 신체 형태를 변형시키고 압도하는 또 다른 형태를 탄생시킨다.

K-pop 남성 가수의 젠더 수행성은 중요한데, 이 글에서 한계적 남성성이라고 부르는 혼성적인 '남성적-여성성의 구현으로서' 동성애/이성애, 남성적/여성적 신체와 행동, 남성적인 응시/여성적인 대상 등을 통해 서구 문화에서 경직된 젠더 이분법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 Chuyun Oh의 「K-pop의 퀴어 관객성: 양성적인 남성 댄싱 바디와 서구의 여성 팬덤」

“한국 스타일은 빨리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빨리 가고 싶다.”

- G-dragon for i-D

<겨울 사마귀>는 이러한 언급들을 혼합하며, 곤충과 포유류를 섞는 외계인과 같은 몸뿐만 아니라 착용을 암시하는 장비가 되기도 한다.

예술과미디어학회
한국영상문화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일정 : 2019년 11월 16일 (토)
장소 : 서소문 역사박물관 명례방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이미지 : 역사와 인간 사이

<1부 - 21세기 영상문화의 현장> 사회 : 장원 한국영상문화학회 학술이사

10:00~10:05	개회사	김 범 수 예술과미디어학회 회장
10:05~10:10	인사말	박 영 원 한국영상문화학회 회장
10:10~10:25	기조발제 1 : 한국영상문화학회 설립과 그 이후	김 동 윤 한국영상문화학회 명예회장
10:25~10:40	기조발제 2 : 영상문화학 : 계보, 인식론, 지정학	김 성 도 한국영상문화학회 명예회장
10:40~11:00	발표 1 : Art, Science and Nature: Towards Future Possibilities	Evelyn Huang <small>인도문화학자/curator/Department Head Academic & Program in IDS International Design School</small>
11:10~11:30	발표 2 : Spectral skins	Weixin Chong <small>싱가포르 Lasalle College of the Arts</small>
11:40~12:00	발표 3 : Kyoto-Seoul: Double-layered History	Akikazu Harada <small>일본 HRD fine art director</small>
12:10~12:30	발표 4 : 작가의 개입을 통한 건축 공간의 사진적 해체와 재구성	정 지 현 사진작가 중앙대학교
12:30~13:00	질의문답	
13:00~14:00	점심 식사	

<2부 - 이미지의 현재와 미래> 사회 : 이재걸 예술과미디어학회 학술이사

14:00~14:20	각 학회 우수논문상 시상 심사평	각 학회 회장 각 학회 편집위원장
14:20~14:40	발표 5 : 한국 하이퍼리얼리즘에 나타난 이미지의 역설 질의	박 경 애 동아대학교 홍 지 석 단국대학교
14:50~15:10	발표 6 : 기억과 역사 재현 매체를 통해 본 증언과 내레이션 질의	이 윤 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 형 래 한국외국어대학교
15:20~15:40	발표 7 : 포스트 휴먼과 신체의 미래 질의	신 승 철 강릉원주대학교 우 선 미 한남대학교
15:40~16:00	휴식	
16:00~16:20	발표 8 : 디지털 시대의 '세계성', 컴퓨터 그래픽 연구 질의	최 소 영 홍익대학교 김 태 연 홍익대학교
16:30~16:50	발표 9 : 이미지의 고통과 사랑 알란 크루디의 사진을 보다 질의	최 중 철 일본 미야자키국제대학교 허 나 영 목원대학교
17:00~17:20	발표 10 : 디지털매체의 시대, 예술은 정신적인 것인가? 아도르노의 미적 가상 개념을 중심으로 질의	유 현 주 한남대학교 곽 영 운 강원대학교
17:20~18:20	종합토론	조 관 응 좌장 예술과미디어학회 명예회장